

화재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종교 인구가 늘어나면서 종교 관련 건축물의 양적증가와 대형화 추세에 따라 이들 건축물의 방화안전에 대한 의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화재통계를 보면 종교관련건축물의 화재발생률은 아직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거나 상업목적이 아닌 대중집회장인 이들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점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뜻하지 않게 화재를 당했지만 전 교역자와 신자가 합심하여 재해를 극복하고 보다 완벽한 방화시설을 새로 갖추고 복구한 부산 P교회를 찾았다.

• 건물개요

지난 7월 불의에 화재를 당한 부산 P교회는 서면로타리 부근에 위치하며 부산지역 개신교 교회중에서는 건물규모나 교인수로 보아 최대규모로 6천여명의 교인과 6백여명의 직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1950년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부전동 현 부지에 천막교회로 시작한 후 1972년 3월에 새성전건립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74년 4월에 연면적 8백여평, 지하1층 지상6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했다.

건물1층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유치원이 있고 2층은 교실과 목사실, 3,4층은 대예배실로 사용중이며 5,6층은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다.

• 화재발생원인 및 경위

최초 목격자인 김한두씨에 의하면 1987년 7월 28일 오전 7시 20분경 교회에 도착, 마당에 들어와보니 교회는 정전상태였고 본 교회 동편에서는 한전의 하청업체인 J전기에서 전선주 이설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잠시후인 7시30분경 공사를 완료한 전공이 차단 스위치를 복구시키고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아침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약 20분후인 오전 7시 50분경 식사를 마치고 교회에 다시 돌아와 보니 교회 3층 동쪽편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고 잠시후 유리창이 깨지면서 불길이 번져 급히 교회 사택의 직원에게 연락하는 한편 119화재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화재원인으로는 당시 교회3층 대예배실에 냉·난방겸용 패키지 블로워가 10대 있었는데 한전측의 권유에 따라 전력의 역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내장된 콘덴사 외에 별도의 콘덴사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후면의 콘덴사가 폭발하면서 발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9시 10분경 완전 진압되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 피해상황

이 사고로 화재발생층인 3층 대에배실과 중4층부분의 골조 및 벽체를 제외한 천정과 지붕, 내장재가 전소되었으며 5, 6층의 창호가 소손되면서 내벽이 심한 연기손을 입었다.

이렇게 피해가 컸던 것은 건물 안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어 화재 발견시간이 늦어졌고 기존의 소방시설을 활용하지 못해 진화작업이 늦어진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 문제점

건물내 상주인이 없다면 특별한 전기적인 원인 없이는 화재발생위험이 적다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 불길이 번져야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피해가 크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중앙난방식이 아닌 개별난방식을 취하므로 어느 면에서는 출화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교회의 재산권을 책임질 소유주가 없어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에서 제반사항을 협의, 결정하게 됨으로써 사무장이나 관리책임자는 결정사항을 집행만 하는 곳이 많아 방화적인 측면에서의 시설보강이라든가 교육 훈련같은 것은 종교단체의 특성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김석규 사무장은 P교회의 방화관리 실태에 대해 일반 평신

도에 대한 방화관리교육보다는 교역자와 직원이 방화관리에 숙선수범함으로써 전 신도에게 방화의식을 전파시키며 특히 난방기구 등에 대해서는 화기취급책임자를 선정하여 반드시 끈 다음 퇴실토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딘지 일반건물에 비하여 관리상 허술함을 느끼게 했다.

● 보험가입현황과 이재보상

당시 P교회는 86년 11월 27일자로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산지부에 3억5천여만원의 보험금액으로 계약기간 1년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협회는 화재발생 즉시 현장조사에 임하여 내용년수 90년, 경년감가율 0.88%를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후 우선 3천5백만원을 가지급하고 피해액이 최종 확정된 12월 3일 3천여만원을 추가지급함으로써 총 6천5백3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완료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장은 이액수는 건물의 부대시설에 대한 피해보상이므로 집기, 비품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피해액에는 미치지 못하나 피해복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협회보험제도의 공익성을 높이 평가했다.

● 복구 및 화재 후 상황

화재가 발생하자 6천여 교인들이 능동적으로 교회 복구에 발 벗고 나섰다. 우선 오손된 부분을 제거하고 연소잔해물을 치워 주변을 정리한 후 즉시 복구공사에 들어갔다. 전소된 지붕틀 새

로 잇고 불연성의 내장재를 사용하여 복원하였으며 전기배선은 전량 케이블선으로 교체하여 두 번 다시는 전기적인 사고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층별 방화구획을 위하여 지하층에는 갑종방화문을, 3층이상 층에는 화재시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차단할 수 있는 자동방화샷터를 각각 설치하여 연소방지시설을 갖추었다. 소방시설로는 ABC분말소화기 15대를 증설 비치하고, 옥내소화전은 전면 보수하면서 옥상 물탱크 위치를 높여 용량을 2배로 늘림으로써 펌프가 작동되지 않아도 자연낙차에 의해 규정 수압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전면 재시설하여 완벽한 경보체제와 진압대책을 마련했다.

김 사무장은 완벽한 복구를 하게 된 데 대하여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해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 이라면서 앞으로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에 최대 주안점을 두고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타율 공장에 근무한 경험을 되살려 완벽한 방화관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이번 화재로 신자 개개인이 느낀 보험의 고마움과 직접 화재를 겪으면서 불조심에 대한 자각이 생겨 앞으로의 방화관리는 완벽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화재예방. 그것은 필요를 느끼는 명사로서의 의미보다는 몸소 실천하는 동사로서의 행동지침임을 우리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한다. 그것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우리모두의 과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